

광주시의회, 5·18주요사업 예산 전액 삭감 논란

행자위 계수조정안 제시...역사왜곡대응사업비·힌츠페터상 무산 위기 오월의노래상설음악회·특별전시 예산 등도 '썩둑'...5월단체 강력 반발

광주시의회가 광주시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주요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최근 2024년도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 일 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안을 광주시에 제시했다.

당초 광주시는 11억 507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시의회는 예산을 7억 8180만원으로 삭감했다.

조정안이 그대로 예정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올해로 3회째를 맞은 힌츠페터국제보도상 예산 1억 7500만원은 전액 삭감된다. 의회에서는 광주인권상, 5·18인문상 등 유사한 다른 상과 병합하라는 취지로 예산을 삭감했지만, 수여 주제인 5·18기념재단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상들을 병합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2021년 제정된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은 해외 각지의 민주화 운동 현장을 취재하는 외신 영상 기자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반면 국비로 수여하는

광주인권상은 인권·통일·인류의 평화를 위해 공헌한 국내외 인사·단체에게, 5·18인문상은 5·18 관련 취재보도를 한 국내 언론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조정안에 따르면 역사왜곡대응지원 사업비 1억 40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5·18재단이 도맡던 '모니터링 및 법적 대응', '진실알리기', '오월길 안내 사업' 등 왜곡대응 사업을 폐지하고 광주시에 맡기겠다는 취지다.

5·18재단은 지난 2015년부터 왜곡대응 사업을 전담해 왔으며 현재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의 왜곡 발언 소송과 지만원씨의 '무당산의 진달래 475송이' 발행 및 배포금지 소송, 박훈택 위탁대 교수의 왜곡 발언에 대한 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사업을 넘겨받을 광주시는 자체 왜곡 대응 예산을 세워놓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다.

광주시는 지난 2019년 광주시교육청, 5·18재단 등과 함께 '5·18역사왜곡대응 TF'에 참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회의를 주재하고 다음 할 일을 공

유하는 등 업무 전달 역할만 맡는 데 그치고 있다.

이밖에 5·18기록관에서 매년 두 차례 여는 '오월 특별전시' 예산 9700만원도 한 해에 한 번만 열리는 취지로 5000만원으로 삭감할 방침이다. 5·18기록관은 이와 관련 "전반기와 하반기 각각 다른 주제로 특별전을 여는데 이를 같은 행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시의회에 최근 전달했다.

광주시의회는 5·18마라톤대회 예산 2430만원도 전액 삭감하는 안을 추진 중이며, 오월의노래 상설음악회(8000만원→5000만원)와 5·18역사체험프로그램(3300만원→1100만원) 예산도 크게 줄인다는 방침이다.

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다은(북구2) 광주시의원은 "재단은 5·18 관련 문제에 대해 자기만의 입장을 안 밝히는 등 제 역할을 못 해 왔다.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통합해도 지난해부터 검토를 요구했는데, 진지한 고민 없이 예산을 그대로 올렸기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역사왜곡대응 예산 또한 '오월길 사업'을 통해 기간제근로자(오월지기) 인건비로 사용하는 등 시비를 재단의 조직 유지에 위한 사업비로 맞대포 쓰고 있었다"고 밝혔다.

5·18 관계자 사이에서는 예산 삭감안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5·18 국제화에 기여해온 국제보도상 예산을 통째로 없애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더구나 5·18 왜곡 대응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 5·18재단을 배제하고 광주시 공무원에게 왜곡 대응을 일임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수만 전 5·18유족회장은 "아직까지 5·18 진상 규명이 끝나지 않았고 왜곡과 편향에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왜곡 대응 예산을 통째로 없애는 건 결코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며 "전담 왜곡대응 팀을 갖고 전문성을 갖춘 5·18재단을 외면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고쳐나가기 보다는 예산으로 협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5·18 관계자는 "운영구조를 개선한다면 일부 사업 예산을 아예 0원으로 만든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광주시의회가 5·18특별위원회를 꾸린 뒤 5·18재단 측에 업무 보고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는 등 맘대로 움직이지 않자 보복 차원에서 예산을 깎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3일까지 이어지며, 14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빗길 추돌사고 3명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 금고 3년형 선고

빗길 과속운전으로 진로변경 중인 차량을 추돌해 3명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하종민)은 교통사고처리 특별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금고 3년 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새벽 4시께 광주시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SUV차량을 운전하다가 4차로에서 한변에 2개 차로를 변경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18·20세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숨졌다.

A씨는 빗길에 제한속도 시속 48km(시속 60km 제한속도 도로이나 도로교통법상 노면이 젖은 경우 최고속도의 20%를 줄여 운행해야 함) 도로를 시속 115~123km로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제한속도 준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해 3명을 숨지게하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 점,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2개 차로 변경)도 사고의 원인이 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사건 브로커' 관련 광산경찰서 압수수색

수사과장 시절 뇌물 받고 코인 사기범 사건 무마 혐의

'사건 브로커'를 수사중인 검찰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현직 간부경찰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1일 광주광산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이날 오전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한 A 경정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광산서 수사과에서 사용 중인 컴퓨터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이날 검찰이 압수수색에 앞서 광산경찰에 A 경정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키스) 결재 이력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점으로 미뤄 혐의입증을 위한 단서 확보 차원으로 해석된다.

A 경정은 광산경찰서 수사과장 재직 시절 '사건 브로커' 성모(62)씨에게 뇌물을 받고 가상자산 사기범 사건을 무마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경정의 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12일 현재 A 경정이 근무하고 있는 광주북부경찰서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지난달 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A 경정은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가성 입증에 가장 중요하데,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추가로 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청소년에 술·담배 팔지 마세요
광주 북구청 아동청소년과 직원들이 11일 오전 중흥동 내 원룸 밀집지역의 한 편의점에 청소년들의 일탈 예방을 위한 청소년보호법위반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음주단속에 타인 신분증 제시...암체 운전자 실형

광주지법 징역 8개월 선고

광주지법 형사10단독(판사 나상아)은 음주운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나주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로 운전하다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잠들었다가 경찰에게 단속됐다.

A씨는 적발현장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기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A씨는 누범기간인 지난 2020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지만 벌금을 미납해 수배상태였다.

수배 사실을 숨기려 한 A씨는 경찰의 신분확인 요청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서류에 지인의 서명까지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신분 위조 사실을 알야면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1년 이상 응하지 않은 점, 지난 2월에야 경찰에 자진 출석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중학생 여제자 성폭행한 운동부 코치 구속

운동부 중학생 여제자를 성폭행한 30대 남자 코치가 구속됐다.

광주북부경찰은 10대 여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30대 남성 운동부 코치 A씨를 미성년자 의제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광주의 한 중학교 운동부 운동 코치로,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을 숙소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0월 말 고소장이 접수되자 수사를 거쳐 A씨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 범행 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로 전환됐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